

‘판13’ 개막전 초구 홈런·13득점 ... 무등기 ‘판’ 키웠다

〈지왕리그〉



1일 무등중학교에서 열린 제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인왕 토너먼트 신야구단과 에프나인 경기에서 신야구단 문명수가 안타를 친 후 출루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등기 사회인야구 1R ... 지왕리그 강자 세한 재규어스 홈런포 ‘평평’

광주·전남 아마야구인들의 ‘가을 야구’가 시작됐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 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가 1일 OB 구장, 동성고 야구장, 서석초 야구장, 무등중 야구장 등 4개 구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호남리그를 제외한 천왕리그(2경기), 지왕리그(8경기), 인왕리그(8경기)의 승자가 가려졌다.

18개 승리팀이 가려진 가운데 연패를 향한 출사표를 던진 ‘디펜딩 챔피언’들의 도전은 모두 승리로 끝났다. 지난 대회 천왕리그 우승팀 팔도 참오리가 정관장 플레이보이즈를 12-4로 제압하고 순항을 시작했다.

지왕리그 3연패를 노리고 있는 세한재규어스는 세종위너스와의 경기에서 1회부터 9점을 뿜어내는 타선의 폭발력을 발휘하며 11-0으로 승리를 가져갔다. 홍익준·박상선은 팀의 승리를 자축하는 홈런포도 기록했다.

인왕리그의 ‘디펜딩 챔피언’ 청연한방병원도 피닉스를 11-5로 꺾고 2연패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천왕리그에서는 팔도 참오리와 유한킴벌리가 대회 첫 승을 장식했다. 유한킴벌리는 광현회·최형필의 홈런포를 앞세워 로즈스나이퍼를 5-0으로 꺾었다.

1주차 경기 결과

천왕리그 8강전(정소·서석초 야구장)

유한킴벌리 0000005-5
로즈스나이퍼 0000000-0
△승리투수:윤훈
△홈런:광현회·최형필(이상 유한킴벌리)

팔도참오리 73101-12
정관장 10120-4
△승리투수:고현무
△홈런:차정환

지왕리그에서는 세한재규어스, 판 13, 파이퍼블스, NH 디스크스, 허버베이스볼, 헬리우스, 무등산생태요양병원, 액터스가 승리팀이 됐다. 액터스는 삼지토건과 역전과 재역전의 치열한 접전 끝에 6-5로 승리를 가져갔다.

인왕리그에서는 청연한방병원과 함께 페가수스, 다이내믹스, 대한철강, 버스터즈, 야구파크, 에프나인, 광주슈퍼스타즈가 우승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대한철강은 서석초 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첫 경기에서 수완동원스프링을 상대로 5개의 홈런을 터트리며 14-4의 대승을 거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왕리그(정소·OB 맥주공장·동성고 야구장)

판13 520105-13
송원타이곤스 002020-4
△승리투수:류석희

백구 클럽 1000000-1
파이퍼블스 121000x-4
△승리투수:조봉근

힐센복지요양병원 0010200-3
NH 디스크스 213000x-6
△승리투수:조재현

삼지토건 200030-5
액터스 300021-6
△승리투수:이명성

허버베이스볼 006152-14
광주위너스 101410-7
△승리투수:유기룡

헬리우스 0201120-6
SC나이트 0010020-3
△승리투수:윤성필

세종위너스 0000-0
세한재규어스 920x-11
△승리투수:정경호
△홈런:홍익준·박상선(이상 세한 재규어스)

전남대OB 0000000-0
무등산생태요양병원 100140x-6
△승리투수:김선도

인왕리그(정소·동성고·무등중·서석초 야구장)

페가수스 12210003-9
포프리 0000500-5
△승리투수:김희욱

다이내믹스 14044-13
미스앤나이스 22010-5
△승리투수:임철민

피닉스 001004-5
청연한방병원 20135x-11
△승리투수:김형석

신야구단 10000-1
에프나인 4530x-12
△승리투수:진성수

상무 400010-5
슈퍼스타즈 23071x-13
△승리투수:김민규
△홈런:허근영(상무)

대한철강 15233-14
수완동원스프링 20011-4
△승리투수:곽현영
△홈런:정연수·김상수·최정재(2개)·김기정(이상 대한철강)

버스터즈 303201-9
4.19 야구단 140010-6
△승리투수:박준규
△홈런:배광식·황인규(이상 버스터즈)

스피어디스 1001-2
야구파크 426x-12
△승리투수:임승현

타이거즈 러브펀드 장학금 4500만원 전달

KIA 타이거즈·기아자동차

KIA 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가 야구 꿈나무들에게 희망의 기금을 전달했다.

지난 30일 광주 넥센전에 앞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타이거즈 러브펀드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전달식에는 KIA 선수단과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조학규 이사장, 장학금 수혜 학생,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담당자 등이 참가했으며, 95명의 야구 꿈나무들에게 기금이 전달됐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지난해 ‘타이거즈 러브펀드’를 통해 적립한 기금중 일부인 4500만원.

타이거즈 러브펀드는 타이거즈 선수들의 경기 기록에 따라 선수와 구단 프런트, 기아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부금을 매월 적립, 시즌 종료 후 적립된 기부금으로 한국 야구 발전과 소외계층 아동 지원 등의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타이거즈 선수단, 프런트, 3700여명의 기아차 임직원이 참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2억5500만원을 적립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2010년 11명의 선수와 2900여 명의 기아차 임직원이 모은 9300만원에 비해 174% 증가한 수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는 지난 30일 무등야구장에서 광주, 전남·북 지역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야구선수 95명에게 ‘타이거즈 러브펀드 야구꿈나무 장학금’ 4500만원을 전달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선동열 “투수들 스트라이크 비율 반타작만이라도...”

덕아웃 말말말

▲민폐 끼치면 안 되는데=한대화 2군 총괄코치, 엔트리가 확장되면서 5명의 선수를 올려보냈는데 잘 못할까봐 걱정이라며, 1일 좌완 박경태, 포수 백용환과 함께 최후락, 고영우, 유재혁이 새로 엔트리에 등록됐다. 2011년에 입단한 외야수 유재혁에게는 첫 1군 등록이다.

▲반타작이라도 하면 좋겠어=선동열 감독, 젊은 투수들의 컨트롤이 좋지 않는데 스트라이크 비율이 50%만 되도 좋을 것 같다면서, KIA는 8월 마지막날 NC와의 경기에서 투수들의 제구 난조로 11개의 볼넷을 내주며 3-7로 패했다.

▲치고도 놀랬지?=지난 31일 NC 김경문 감독, 전남 홈경기에서 팀 창단 첫 마산 구장 장외포를 쏘아올린 나성범을 보고, 짧게 손이 잘 빠져나와서 홈런이 됐는데, 홈런은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을 거라며, 김경문 감독에게 원포인트 강의를 들은 나성범은 31일 KIA와의 경기에서도 임준섭을 상대로 1회 솔로포를 터트리며 두 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다.

▲어떻게 쳤는지도 모르겠어요=나성범, 어떻게 공을 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공이 멀리 날아가고 있더라면서, ▲우와! 여기에서만 움직여=NC의 타격 훈련을 지켜보던 신인 서용주, 대선배 이호준의 프리배팅을 보고, 상체를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장타가 나오는 등 타구 질이 좋다고 감탄하면서,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13승

샌디에이고전 6.10닝 1실점 ... 2루타·득점 ‘북치고 장구치고’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선발투수 류현진(26)이 경기 초반 깔끔한 투구로 ‘1회 징크스’에 대한 우려를 털어냈다.

자신의 최강점인 위기관리 능력은 그대로 지켜냈다.

류현진은 지난 3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6.1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속아내며 8안타를 맞았지만 볼넷을 1개만 허용하고 1실점으로 상대를 틀어막아 시즌 13승째(5패)를 거뒀다.

류현진은 늘 아슬아슬하게 넘기던 1회를 깔끔하게 출발, 승리를 예감하게 했다.

류현진은 25일 끝난 보스턴 레드삭스와와의 경기에서 1회에만 몸에 맞는 공 1개와 3점포 등으로 4실점 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1회에 던진 공은 13개에 불과했다. 직전 경기에서 1회에만 31개의 공을 던진 것과 비교하면 투구 수 관리가 뛰어났다.

류현진은 타선에서도 불방망이를 자랑하며 다저스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류현진은 0-1로 뒤진 2회말 2사 2루에서 좌익수 키를 넘어가는 2루타를 날렸다.

메이저리 10번째 안타이다. 류현진은 다음 타자 야시엘 푸이그가 유격수 키를 살짝 넘어가는 바가지 안타를 치자 재빨리 3루를 돌아 상대 포수를 피해 홈에 슬라이딩하



LA 다저스 류현진이 지난 31일(한국시간)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2회 푸이그의 안타때 슬라이딩으로 홈런하고 있다. 류현진은 이날 시즌 13승(5패)을 거뒀다. /연합뉴스

며 역전 점수를 뽑았다. 이날 동점 적시타와 역전 결승 득점을 올린 류현진은 “직구를 노려 쳤다”면서 “홈으

로 해도하면서 무조건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어서 슬라이딩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